

서울국제친선협회 아사카와 학술회의  
ソウル国際親善協会 浅川学術会議

## 시대의 국경을 넘은 사랑

: 아사카와 다쿠미의 임업과 한국민속공예에 관한 연구

## “時代の国境を越えた愛

: 浅川巧の林業と韓国民族工芸に関する研究”

2011年 9月 5日(月) 13:00 ~ 17:00  
한국프레스센터(韓國 プレスセンター)

주최 :  SIFO 서울국제친선협회

후원 :  일본국제교류기금  재단법인 수림문화재단

• 한국 아사카와 다쿠미 현창회 • 일본 아사카와 다쿠미 사모회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 특별강론 I

## ■ 특별강론자



### 이나가 시게미 (稲賀繁美)

- 일본의 미술연구자, 비교문화학자
-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
- 1997년 「회화의 황혼」으로 산토리 학예상, 2000년 「회화의 동방」으로 가즈쓰지 데쓰로 문화상수상

## ■ 주요 강연내용

1922년 6월 4일, 일본통치시절 경성에 있던 아사카와 다쿠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때 마침 조선에 신사건축이 진행되어 광화문을 철거하는 일이 화제로 떠오르던 시기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조선신사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성벽은 파괴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은 철거되어 어울리지도 않는 숭배를 강요하는 신사 따위를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건축하는 관료들의 속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 경복궁 경내의 신축관저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북악산(백악산)과 근정전, 경회루와 광화문 사이에 무리하게 끼어들어 자리잡고 있는 처사는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그리고 그곳 건물들의 조화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심술궂어 보인다. 북악산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일본인의 치부를 드러낼 듯이 보이기도 하다. 조선신사도 영원히 일본과 조선 양민족의 융화를 이끌어낼 근본적인 힘을 지니지 못함은 물론이요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다」.

아사카와 다쿠미 탄생 120주년, 사망 80주기를 기념하여 이를 계기로 다음 세 가지 다소 예민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조선 도자기와 가구에 대한 그의 평가는 조선신사 및 총독부관사 건축을 대표하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정책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인식되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식민통치하의 권력과 같은 맥락으로 지배행위와 같은 종류로 인식되어 부정적으로 규탄 받아 마땅한 것인지 하는 점이다.
2. 그는 술선수범하여 조선의 민속도구와 도자기를 재평가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이자 식민지 지배자였던 아사카와가 선두적으로 착수한 사업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아사카와와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한 조선도자기에 대한 평가는 한민족의 자긍심과 미의식에 대한 침략이다. 아사카와는 조선의 민중생활에 동화되고자 하였으나, 그의 동정은 식민지 측의 전형적인 우월감에서 비롯된 가부장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민족미술관 운영을 포함한 아사카와 사업은 문화제에 대한 일종의 강제행위이며, 오히려 한반도의 민족의식을 비하시켜 치욕스러움을 안겨 주었다는 논조이다. 아사카와의 업적을 이와 같은 평가로부터 과연 구제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또한 구제해야 한다면, 어떤 논리에 입각해서 논해야 하는가?
3. 일반적인 견해는 원래 자기 문화를 타 문화에 소속하는 논자에 따른 평가인데, 이 불편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칭찬받았을 때의 낮간지러운 감정, 혹은 이치에 안 맞는 평가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어느 한 「민족의 마음」은 타민족의 평가를 받으면 여지없이 평가절하 되기 마련인가, 타 민족에게는 잘못된 평가밖에 내릴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타 민족의 평가에 대해서는 거부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민족의 마음을 옹호하는데 불가피한 것이 되는 셈인가? 아사카와 다쿠미의 생애와 그의 존재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 特別講論 I

## ■ 特別講論者



### 稲賀繁美

-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教授
- 1997年「絵画の黄昏」で サントリー学芸賞
- 2000年「絵画の東方」で和辻哲郎文化賞受賞

## ■ 主な講論内容

一九二二年六月四日、日本統治下の京城にいた浅川巧は、つぎのように書いている。おりから朝鮮神社の建設がすすめられ、光化門の撤去が話題となっていた時期のことである。

「少し下ると朝鮮神社の工事をしてみた。美しい城壁は壊され、壮麗な門は取除けられて、似つきもしない崇敬を強制する様な神社など巨額の金を費やして建てたりする役人等の腹がわからない。山上から眺めると景福宮内の新築庁舎など実に馬鹿らしくて腹が立つ。白岳や勤政殿や慶会楼や光化門の間に無理強情に割り込んで座り込んである処はいかにもづうづうしい。然もそれ等の建物の調和を破つていかにも意地悪く見える。白岳の山のある間永久に日本人の恥をさらしてある様にも見える。朝鮮神社も永久に日鮮両民族の融和を計る根本の力を有してゐないばかりか、これから又問題の的にもなることであらう」。

浅川巧の生誕120年、没後80年を記念する顕彰会の出版事業に寄稿を求められた者として、この浅川の手記を出発点に、以下の3点の、いささか厄介な問題を手短かに検討したい。

1. 浅川巧による朝鮮陶磁器や家具の評価は、朝鮮神社や総督府庁舎建設に代表される日本による韓半島支配政策と、いかに異なったものとして肯定的に認識できるのか。それとも植民統治権力同様の支配行為の一変種として、否定的に糾弾されるべきなのか。

2. 浅川は率先して朝鮮の民具や陶磁器を再評価した。だが、外国人であり、しかも植民地支配者である浅川が先鞭をつけた事業には、現在でもなお、半島側から批判が提起されている。曰く、浅川や柳宗悦による朝鮮陶磁器の評価は、韓民族の矜持や美意識に対する侵害である。浅川は朝鮮民衆の生活に同化しようとしたが、かれの同情は植民者側に典型的な優越感にもとづく家父長主義の現れにすぎない。朝鮮民族美術館の運営を含む浅川の事業は、文化財に対する一種の強奪行為であり、かえって半島の民族意識を卑下させ、恥辱の念を植え付けた、との論調である。浅川らの営みを、このような批判から救うことは可能だろうか。また救うべきだとすれば、それはいかなる論理に基づきうるのだろうか。

3. より一般的に、そもそも自己の文化を他文化に所属する論者によって評価されることの、居心地の悪さは、何に由来するのか。褒められた場合の、くすぐったいような感情、あるいは筋違いにみえる評価に対して抱く反感や立腹は、どこからやってくるのか。ある民族の「民族の心」は、他民族から評価されてしまえば、いやおうなく値減りしてしまうものなのだろうか。他民族には誤った評価しかできないのだろうか。そして他民族の評価に対しては、拒絶を貫くことこそが、自「民族の心」の擁護には不可欠なのだろうか。

浅川巧の生涯とその存在とは、いまなお、そうした問いを我々に突きつけている。